

GRACE 선교소식

2026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56개국 292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밤 비행기로 출발하여 한국에 잘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날이 마침 한국의 설날(구정)이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지낸 이후 처음으로 설날을 한국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른들께 인사드리며, 조카들과 손주들에게 세배도 받는 등 한국 고유의 설날 전통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서울 GMI 은혜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신년 축복성회와 임직식 예배

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하는 모델교회로 세우시고, 세계선교 마무리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울 GMI 은혜교회는 전 세계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GMI 선교사 훈련원 사역과 탈북민을 위한 은혜동산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편지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였고, 인도, 튀르키예, 프랑스, 콩고, 인도네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단기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은혜교회의 핵심 사역인 그레이스 인카운터와 사랑의 불꽃 TD 사역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아 드러지는 신년 축복성회를 통하여 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제직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I교회 창립 1주년 신년 축복 성회: 2/20-22
- GMI 아시아 선교컨퍼런스 (베트남): 2/23-26
- 선교적 모델 교회 목회자 세미나: 3/16-3/18
- 미주연합 노회: 3/24-26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세워지며,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는 선교적 모델교회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2026년 출발 인사를 주께 감사로 올려 드립니다. 지난해 한 해를 보내는 여유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12월 VBS 및 의료사역으로 미뤄진 빈민아동 대심방을 다니면서 지난해보다 작아진 선물가방과 그리고 다 돌보지 못하는 빈민아동들을 큰 틀에서 보면 이유와 핑계지만 섬김은 작은 것에서 행복이 이뤄짐을 찾게 하십니다. 신학교 사역은 운영의 변곡점에 와 있는 상태로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재의 신학생을 계속 지원하여 가르치는 시간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과목별 강사 수급과 해마다 인상되는 신학교 임대 사용료 등이 소집신학교에 어려움

있는 준비와 진행을 해 나가는 반면 비대면 청년과 여성지도자 쉼신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년중 신학교와 소집본신학교에 청년신학생들을 리더쉽으로 성장시키고자 2년간 기존 신학교 울타리에서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AFA 청소년 사역은 21기 59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청년세대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가 교회마다 페루신학생 목사님들이 추천하고 캔디데이트를 직접 섬기는 축복의 은혜 연결과 섬김의 리더십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프로그램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빈민아동후원 사역은 연차를 거듭하며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모든 상황이 시간과 더불어 변화감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아동후원 대상자들의 지원과 재정 후원동역들이 지



치지 않고 아이들의 고등학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후원을 지속하도록 기도합니다.

신학교 졸업생 건축 지원은 더디지만 한 땀 한 땀 부족한 것들과 자재 구입헌금을 지원하며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빈민지역에 아이들과 신학생에게 복음의 희망이 되고 마지막 남은 벽체상단과 지붕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M국

강00 / 이00 선교사

이곳은 M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조그마한 도시 아웅반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위치한 지역은 지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쿠데타로 인하여 피난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신생 마을입니다.

저희 사역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선교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주요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 모아 주세요.

아웅반은 해발 1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저희 사역지는 제일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물의 공급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몇 개 있으나 마을 사람들이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교회

에서도 어렵게 우물을 뚫어서 인근 마을에 공급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월 첫째 주에 시작된 눈이 40cm 정도 쌓이고 1월 말경에 눈이 녹아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추워서 장사를 안하시고 사람들도 바깥에 나오지를 않아서 냉랭하게 지난 1월이었습니니다.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기 현지 날씨에 많이 익숙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해가 뜬 일수가 하루 정도이고 고작 몇시간이었지만 주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보여 줄 수 없지만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살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일들이 저 개인에게 일어날지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는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선교사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마냥 좋습니다.

비자

아직 갱신이 안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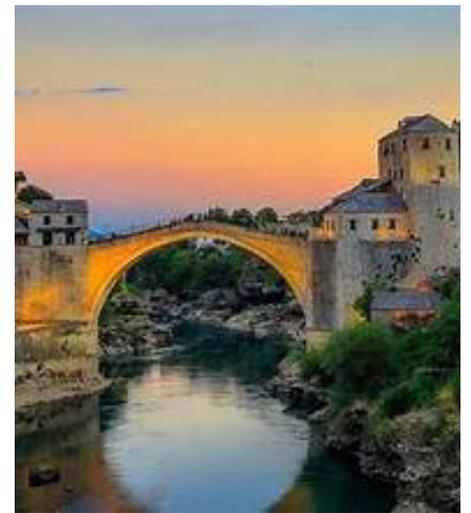
언어 공부

저의 장점 중의 하나는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끈기인데 이것이 언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리오목사님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서 점점 보스니아어로 대

화를 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늘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어와 스페인어에 없는 격(case)체계로 인해서 말을 하면서 격을 계산하는 저를 봅니다. 동사의 경우도 하나의 뜻에 두가지 동사를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다' 라는 동사를 쓰기 위해서 그 행위가 한번의 행위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행위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숫자를 읽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에 익숙한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문법체계이기에 늘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원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늘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체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편 1장을 보스니아어로 외우는 중입니다.

건물 임대

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한 공간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곳 사람들은 집에 사람들을 들이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기타를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도구로 사용되리라 봅니다. 또한 제가 사는 곳에 감옥이 있기에 어느 정도 말이 되면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건물 임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기타와 피아노를 복음



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베이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후의 교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에스프레소 커피로 수다를 떨면서 교제하는 것이 여기의 문화입니다. 외국인인 저는 이들의 교제 방식이 참 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주 가끔씩 제가 만든 르벡쿠기나 제누와즈 그리고 파운드케익을 만들어서 교제의 먹거리를 풍성하게합니다. 내일도 제가 만든 제누와즈를 가지고 갑니다. 늘 주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호속 선교사

잔지바르는 지금

작년 12월 9일에 예고했던 데모가 일어나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경찰들이 통제하면서 별다른 사고없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월이면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 무슬림 영혼들이 금식하는 도중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버그린 학교

지난 기간 동안 우리학교에서는 두 가지 큰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학년 학생들의 졸업,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건축한 학교로의 이전입니다.

먼저, 7학년 졸업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린 아이로 학교 문을 들어섰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졸업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에게는 감사와 뭉클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온 아이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그동안 렌트해서 사용하던 학교를 떠나 새로 건축한 에버그린 학교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이제 진짜 우리 학교예요”라고 말하며 책상에 앉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도 불평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공부하며 견뎌내고 이제는 넓고 밝은 교실에서 마음껏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전보



다 더 집중하고, 학교에 오는 것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땅의 아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졸업한 학생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장래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분야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것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그리고 새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노아학교

생소한 유치원에 울면서 입학했던 코흘리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였고, 새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다시 교실에 모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날, 무대에 선 아이들은 서툰 발걸음과 해맑은 웃음으로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한 뼘 더 자란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과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노아학교 교실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글자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친구와 함께 장난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하루하루 배움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교육과 무료급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따뜻한 한 끼를 먹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기도과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합니다. 한 아이, 한 가정의 미래를 품고 함께 걸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새학기에 적응, 교사들의 지혜와 사랑을 위해 계속해서 기



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잔지바르 안디옥 성경대학

제 10기 성경대 졸업생들이 떠나간지 벌써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결코 넉넉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낮에는 일터로 나가고, 없는 시간을 쪼개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몸으로도 성경을 펼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고백으로 끝까지 이 과정을 완주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졸업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지금 한 제자는 오지인 밤비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은 저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배운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과 후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1기 성경대학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0명이 지원하였고 개학을 기다리고 있으며 2월 초에 개학하여 시작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올려 드리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11기 성경대학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훈련되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새벽에 전 세계를 떠들썩 하게 했던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작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희는 막 잠이 들려는 때였는데, 멀리서 들리는 떨어지는 폭탄소리와 미사일과 전투기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새로운 베네수엘라가 오도록 기대하며 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작부터 저희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이 땅에 하실 일들이 더 기대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19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신학교

작년 10월에 졸업을 했어야 했던 5기 목사님들이 나라의 불안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올해 1월로 졸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1월 셋째주에 모여 17일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다음 날인 18일부터 24일까지는 7기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강사가 오기 힘든 상황이라 제가 두번의 신학교를 인도해서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우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변화 받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한 목사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주님 따라 목회를 잘 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목사님들이 2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2월 1일-7일) 한주간 콜롬비아 신학교 2차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창세기 강의를 위해 이창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콜롬비아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도나이 교회 성전 이전 예배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인 아도나이 교회가 그동안 예배 장소가 작아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운데 교회를 이전하여 지난주 주일부터 새장소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교회목회를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된 아도나이 교회의 목회의 시작과 현재, 과정을 모두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뜻이었고 또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다고 밖에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도나이 교회는 또 하나의 현지교회가 아닌 대학생 사역을 통해 미래의 리더들을 세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사역의 모델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모델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장소에서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18년간 동역하고 있는 엘리야와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해오던 네오넬을 정식으로 목사안수를 하고 교회 부목사로 세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 이뤄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주님의 뜻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사 훈련원

작년부터 기도제목 나눴던 선교사 훈련원이 시작됐습니다. (CEFOM)



3개월의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2-3년씩 대학생 사역을 함께했던, 6명의 제자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에 올라와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오전에는 영어와 터키어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대학교와 아랍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와 함께 말씀과 선교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 각자의 수준에 맞는 곳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인턴 훈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한 목사님 가족(4명)은 올해 말 러시아권으로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중, 남미 나라에 연약하고 어려운 나라임에도 선교하는 모델을 보여줌으로 마지막 때 중, 남미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이야기

어느덧 베네수엘라 선교 20년차입니다. 딸 예림이는 이제 20대가 됐고 교육학을 배우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예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영상제작을 배우는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시간이 지난 것이 실감이 납니다.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것은 많은 사역에 주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기름부으심 그리고 부족함 없는 재정과 저희 부부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 하셨는지요?

어느덧 2026년이 새해가 시작되니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 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미국에 유례없었던 한파가 몰아 닥쳤던 것 처럼 이곳 과테말라도 날씨가 많이 싸늘해 졌습니다. 일년 내내 섭씨 0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이곳의 전형적인 날씨가 지난 주에 처음으로 온도가 0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과테말라에 갠단의 폭동으로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어 정치/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쟁, 세계적 재난 사태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13일에 GMI신학교 첫 수업(성령론, 문기훈 목사)을 시작으로 2026년 신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024년부터 25년 12월까지 2년동안 정해진 커리큘럼을 잘 이수한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이미 작년에 엘살바도르에 개척된 두 은혜교회(La Gracia)의 목사 2명(Victor 목사, Cristian 목사)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졸업생 중에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 두 개의 은혜교회를 개척할 목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GMI 신학교 졸업생들을 통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까지 중미국가에 더 많은 은혜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은혜교회가 아니라도 GMI 신학교를 졸업한 타 교단 목사들과의 교회 연합사역이 더욱 긴밀해 질 것입니다. 바로 중미교회들이 GMI의 선교적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사역비전이 바로 중미 선교 사역의 핵심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난주에 니카라과에 선교 정탐 및 인카운터 준비를 위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선교 편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니카라과는 그 어느때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릴 절호의 타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AFA와 인카운터 등 GMI의 선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12일까지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구와(Managua)에서 니카라과 인카운터 1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가 순조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니카라과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사도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 때 보여 주셨던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행16:9)을 주셨던 것처럼, 8년 전에 니카라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으로 똑같은 환상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니카라과의 GMI 선교사역(인카운터/AFA)을 통해 큰 선교적 열매가 맺어져서 니카라과 교회들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도록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공영환 / 은자 선교사

대학생 단기선교사역 (1월 30-2월 6일)

학생 7명과 함께 주일 찬양전도집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와 교회건물을 보수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

습니다.

2차 단기선교사역 (2월 11일-20일)

한국에서 안양축복교회와 물댄동산교회에서 45명이 옵니다. 노방 찬양전도와 전도지배포 사역을 통해 2월 15일 주일에 K Food 전도집회를 준비합니다.

한국음식을 여러 종류 준비하고 찬양, 무언극, 태권도, 부채춤등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0명의 불신자들이 울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믿음의 용사들!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피난민 정착지 마을에서 복음심기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난민 가정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년이 미용훈련 기초 과정을 마치고 2단계 전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공 유학 경비를 위해 후원 자매결연을 기도하며 교회에 나온 마을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웅반 개척스토리

한국어 교실이 오픈되고 주일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복음을 처음 접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거짓 종교가 삶과 신념이 되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해 주세요
2. 에버그린학교 건축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학교로 이사하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에버그린, 노아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3. 제 10기 성경대학 6명 졸업생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새로 시작하는 제 11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5.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한국 최광 / 나미연 선교사

1. 3월 첫주부터 시작하는 탈북민 성경통독 100독학교 10기생에 50명 이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길!
2. 하나님의 말씀 통독으로 듣고 암송하고 기도(듣새기 무브먼트로)하는, 선교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3. 2027년 1월의 어게인1907 평양대부흥 6차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충만의 은혜를 주시도록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1. 기도와 말씀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2. 2026년 3월에 GMI선교센터 이전(과테말라→엘살바도르)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3. 2026년 GMI 신학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4. 2026년 4월 니카라과 인카운터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비자 갱신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2. 언어의 지속적인 발전
3. 사람들과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1. 신학생 월1회 청년지도자 리더십 예배와 비전트립을 통한 청년 사역프로그램 개발과 청년 갈렙장학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페루신학교와 청년과 여성지도자 줌신학교의 신학생 모집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앞으로 진행될 AFA청소년 22기와 AFA페루 20기에 섬김이 중단 없이 연결되도록
4. 아동후원 대상자들의 지원과 재정 후원동역들이 지치지 않고 아이들의 고등학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후원을 지속하도록
5. 신학교 졸업생 건축 지원은 더디지만 한 땀 한 땀 부족한 것들과 자재 구입헌금을 지원하며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빈민지역에 아이들과 신학생에게 복음의 희망이 되고 마지막 남은 벽체 상단과 지붕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선교현황

56개국 292명 (자체파송 79%) (2026년 1월 기준)

러시아 및 CIS [권역담당: 장영호 장로]

러시아 센 삐제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비르스크: 김경순, 이정식
 사할린: 김성웅(지수), 이르크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 아),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블라고베헨스크: 은성식(김경희),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스탄: 강형민(숙진)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선교사 겸임

동북 아시아 [권역담당: 원용경 장로]

한국: 고은희, 김광문(이용숙), 김영진, 김예스더, 최광(나미연), 이정호(이은주), 정태호(정은주), 황영수(정경련)
 중국: 김00(김00), 김00(김00), 이00(이00), 조00(윤00), 장00(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환(김정희), 박두희(이선희)

동남 아시아 [권역담당: 류영수 장로]

베트남: 강00(범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김경수(서경란), 임진섭 (양윤희), 박경덕(신미선), 주진석(유경숙), 유옥임
 라오스: 신00(00), 정00(김00), 천00(이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박효순(이영희)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미얀마: 한00(김00), 곽00(엄00), 김00(이00), 류00(킨000), 강00(이00), 김00(00), 전00(김00)

서남 아시아 [권역담당: 최운호 장로]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김00
 인도네시아: 기00, 김00(김00), 한지영(김성웅),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이00(장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조정석(남예스더), 오판석(정미라),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이스라엘: 김00(아00), 장00(최00), 이00(00), 최00(아00), 강00(ROO), 김00(조00), 지00(유00), Chin00, 양00(00), 이라크: 김00, 김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김00(박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중남미&포어언어 [권역담당: 장준영 장로]

아르헨티나: 스텔라김 겸임 칠레: 스텔라김 겸임
 쿠바: 안희진(구스타보),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수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겸임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 겸임
 멕시코: 이종식, 김봉년(김미란),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모잠비크: 하선(남성만)겸임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박병순)

유럽 [권역담당: 권역석 장로]

독일: Vitali Gerner(Musa Galiew),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튀르키예: 김00(00), 공00(박00), 최00(이00), 김00(00), 전00, 이예레미야(권은혜)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권역담당: 이상홍 장로]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정희),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환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걸 집사 (714-337-3091)
- 튀르키예 이란 난민 인카운터 2기 (3/12-3/17)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김태형 집사
 문의: 김규현 집사 (714-502-4399)
- 네팔 코이노니아 인카운터(3/27-4/4)
 S/L: 권상욱 목사
 리더(문의): 조제이슨 집사 (213-905-0636)
 총무: 최성욱
- 시베리아 티디 22기 (4/6-4/9)
 S/L: 한성우 선교사
 문의: 박혜숙 전도사 (714-388-2896)
- 니카라과 인카운터 1기 (4/6-4/12)
 디렉터: 추금환 집사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O/T: 2/9(월), VC 108, 7PM

- MEGL #16 Türkiye (4/14-4/17)
 S/L: 한기홍 목사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T/M: 3/5(목), 웨딩채플, 7pm
- 파라과이 상담국 선교 (4/21-4/24)
 S/L: 김영호, 김정원 목사
 렉터: 김준규 장로 (714-336-8320)
-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1기 & 개척선교 (4/23-5/3)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T/M: 2/4(수) 108, 7PM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7/4)
 S/L: 설성훈 목사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5/26-6/2)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차윤석 집사(714-334-2340)
 O/T: 3/17(화), 7pm, VC 108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